

# 도요타, 올 세계 판매 750만대...폭스바겐 제치고 '1위'

### 폭스바겐 조작 스캔들 수혜...엔저·북미시장 호황 프리우스 해치백 등 신차 출시...독주 이어질 듯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파문속에 일본 도요타가 자동차가 판매의 속도를 내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올해 1~9월 자사 그룹(히노<日野>자동차와 다야하쓰공업 실적 포함)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1.5%가량 감소한 약 749만8000대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로써 도요타는 올해 상반기에 세계 판매 1위였던 폭스바겐 그룹을 제치고 1위를 되찾았다. 올해 1~3분기 도요타의 일본 내 판매 대수는 164만6000여대로 7.8%나 감소

했으나 국외 판매가 585만2000대로 0.4% 성장했다. 도요타는 상반기 판매 실적 결산에서 올해 4년 만에 폭스바겐에 1위를 내줬다.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을 극복하고 2012년 1위에 오른 뒤 4년 만에이었다. 그렇지만 3개월만에 전세를 역전했다. 이와 같은 도요타의 질주는 폭스바겐이 지난달 차량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디젤 차량 판매를 중단한 영향도 있지만 엔저와 북미시장의 호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엔저의 힘으로 2

년 연속 상승장구하고 있다. 올해 회계연도 상반기 달러당 엔화값은 121엔 안팎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 정도 떨어졌다. 2012년 12월 아베 2차 정권이 들어선 직후 달러당 80엔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50% 이상 절하됐다. 해외판매 비중이 높은 자동차업계에는 아베노믹스발 엔저가 구세주나 다름없다. 엔저로 가격경쟁력이 생긴 일본 자동차업체 실적은 견인한 것은 북미시장이다. 저금리와 가솔린 가격 하락으로 올해 치인 1700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세라면 도요타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도요타가 올해 안에 연비를 개선한 신형 프리우스 해치백을

출시하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랜드 크루저에 안전 장치 등을 추가한 신차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도요타는 미래를 이끌 새로운 희망으로 수소차를 내걸고 있다.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사장은 지난주 2050년까지 내연기관으로 구동하는 차량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라이"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르며 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말 첫선을 보인 미라이는 10월 유럽에도 상륙했다. 도요타는 향후 미라이 판매 지역을 확대하고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미라이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만들어낸 전기로 움직인다. 충전소에서 공급받은 수소는 차량 내 탱크



도요타 렉서스 모델 'LS600hL 이그지큐티브'.

에 저장되고 그릴을 통해 들어온 공기는 연료전지 스택에 전달된다. 수소와 산소는 연료전지 스택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가 모터를 구동해 차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사회적 경제 전국 최다 매출은 최하위”

### 광주, 금융지원시스템 시급 한은 광주전남본부 세미나

숫자로는 전국 최다 수준이지만 경제여건이나 지자체 지원 면에서 허약한 구조를 가진 광주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나주몽 전남대 교수는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교수는 "광주지역 사회적

경제는 양적으로는 설립 조직수가 전국 최다 수준(인구 십만명당 46.8개로 전국의 약 2배)이지만 업체당 출자금과 매출액이 하위권으로 경제적 여건은 취약하고 연계구조상 조직간 자발적 연계와 역할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재발굴 및 육성, 고객 확보 및 홍보, 중간지원조직 역할 재정립 및 사회적 금융 지원, 인적 자원 교류와 교육활동 등을 통해 조직간 자발적 연계를 모색해 조직을 운영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시장창출을 위한 신규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간 연계구조의 매개 역할을 담

당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조직의 성장을 돕는 금융기관 설립 등 체계적인 금융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이주형 광주시 사무관(일자리투자정책), 박용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창조경제연구원), 박상하 고구려대학교 교수(광주 NGO시민재단 사회적경제센터장), 김원준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문성극 엠마우스산업 대표이사, 이병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팀장(경제조사팀)이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광록기자 kroh@

##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타이어 지분 일부 처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이던 금호산업 지분 5.45%, 금호타이어 지분 3.74% 등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IB(투자자

행)업계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과 장남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지난 27일 보유 중인 금호산업지분 9.93%(345만6179주), 금호타이어 지분 8.14%(1286만7736주)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매각주권은 NH투자증권이 담당했다.

블록딜에서 금호산업 지분 5.45%와 금호타이어 지분 3.74%가 매각됐으며 총 매각대금은 약 760억원이다. 다만 매각 가격에 전년 증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아 전량 매각은 되지 않았다. IB업계에서는 전량 매각이 가능했다면 154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매각하지 못한 금호산업 지분 4.48%와 금호타이어 지분 4.4%는 전략적투자자(SI) 측에서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효성, 코오롱 등 대기업의 증권기업까지 다수의 기업들과 투자 논의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2.51 (-2.14)	금리 (국고채 3년) 1.63% (0.00)
▲ 코스닥 693.53 (+5.21)	환율 (USD) 1131.00원 (0.00)

## 경인리츠, 총장로 핫 플레이스에 '명품 소형아파트'

### NC웨이브 뒷편 '총장 고운라피네' 148가구 공급 무제한 전매 가능 투자처로 매력...임동에 전분주택

광주 지역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구 총장로 역세권 중심가에 새로운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 경인리츠는 광주 동구 총장로 파출소 인근, NC웨이브 뒷편에 '총장 고운라피네' (조감도)를 짓기로하고 29일 견본주택을 오픈,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주목받는 핫 플레이스에 들어서는 총장 고운라피네는 지상 22층 1개동으로 전용면적 69㎡ 148가구 규모다. 총장 고운라피네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주거시설로 총장로가 갖춘 다양한 편의시설을 한결함에 누릴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종합쇼핑몰 NC웨이브가 도보로

1분안에 있으며 광주도시철도 1호선 금남로 4가역은 3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롯데백화점, 광주공원 등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안전한 아파트로 높은 희소성으로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재테크를 위한 투자처로서도 양호한 조건을 갖췄다. 김민국 경인리츠 개발사업본부 과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에서 교통, 문화, 쇼핑 프리미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라며 "실거주 뿐만 아니라 투자처로서도 손색없는 명품 주거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북구 임동 85-4번



지에 위치해 있다. 문의 062-225-003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CEO와 청년 만나 따뜻한 '담소'

### 한국산단공, 취업컨설턴트 등 초청 조선대서 소통의 자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산단공)은 27일 조선대 전자정보공과대 IT홀에서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인생멘토, 진로·직업·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층이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풀어가는 '담소(談笑·담 없는

소통)'를 개최했다. 담소는 실업난과 구인난의 인력 mismatch 현상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산단공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재 지원사업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산단공과 조선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KB 국민은행이 후원한 이번 담소에서는 광주첨단산단 내 기업대표, 전문강사, 취업컨설턴트로 구성된 멘토들이 강연과 취업·진로 관련 조언을 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박화성 (주)오메디칼 대표이사, 김창수 (주)현성테크노 대표이사, 이동진 럭키브라더스 영화제작사 대표, 신상진 취업컨설턴트가 사전 신청한 재학생 300여명과 함께 참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6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빌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최고의 마진  
▶ 최소의 창업비용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육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